

## 제주4·3 소설 속 여성의 말하기와 재현(불)가능성:

탈식민 페미니즘으로 본 현기영의 <도령마루의 까마귀>,  
<거룩한 생애>\*

이태준\*\*

### 〈차 례〉

1. 머리말
2. 서발탄과 이중의 식민화 - 왜 탈식민 페미니즘인가?
3. 탈식민 서사로서 제주 여성의 말
4. 가부장제에 얽매인 여성서사와 재현의 (불)가능성
5. 맺음말: 담론의 균열과 발견되는 4·3여성의 주체성을 예고하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기영의 제주4.3 소설을 탈식민 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며, 소설 속 여성의 말하기와 재현의 (불)가능성을 탐구하였다. 현기영의 4.3소설 속 여성들은 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가부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9S1A6A3A01102841).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장적 역할에 간혀 희생당하는 존재로 재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기영의 4.3소설 속 여성 인물에 대한 재현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는 여성(귀리집)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토속어를 적극 활용하여, 4.3의 수난을 겪는 존재로 서사하였다. 이는 4.3의 비극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4.3의 기억투쟁이 봉쇄된 가운데 국가폭력을 은밀하게 고발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발표된 〈거룩한 생애〉(1991)는 여성(간난)의 생애를 통해 4.3의 비극을 지역적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식민과 분단의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했다. 하지만, 여성의 주체성이 식민지 저항으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 서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기영 소설 속 여성(간난, 귀리집)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제주 여성으로 그려지지만 4.3항쟁에서는 가부장제에 얽매인다. 여성들은 4.3 당시 항쟁에 참여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가부장제와 비극적인 서사에 갇힌다.

4.3사건의 희생담론은 국가폭력의 기억을 역사화 했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을 피해자로 고정하고 다른 기억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연구는 4.3의 진상규명이 당시 국가폭력의 양상과 경과를 밝히는 작업뿐만 아니라,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주체성을 조명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주제어: 제주4·3, 탈식민페미니즘, 서발턴, 재현, 희생담론, 현기영, 국가폭력, 가부장제, 기억투쟁

## 1. 머리말

산에서 심부름하던 처녀들은 희생이 컸습니다. 아무개 처녀는 순경

이 자신과 결혼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거절하여 죽었습니다.-이춘형<sup>1)</sup>

이춘형이 언급한 여성에게는 3가지 결심이 있었다. 이는 심부름을 통해 항쟁에 참여한 결심, 순경과 결혼하면 생명이 보장될 수 있었지만 결혼을 거부한 결심, 그리고 죽음으로 저항을 증명한 결심이다. 이 여성의 결심은 오늘날 제주4·3<sup>2)</sup>의 역사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현기영은 문학 활동을 통해 반공주의와 분단국가 아래 억눌려왔던 4.3의 기억을 소환하였다. 대표작으로 1978년 현기영이 발표한 단편 소설인 <순이삼촌>은 평범한 제주 여성인 ‘순이’의 죽음을 통해 4.3의 국가폭력과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고발했다. 즉 현기영은 문학을 통해 국가폭력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반공 국가가 주장한 ‘4.3=공산폭동론<sup>3)</sup>’에 대항하였다.<sup>4)</sup>

- 1)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p. 239.
- 2) 현재 대한민국에서 4·3의 공식 명칭은 ‘제주4·3사건’이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제주4·3사건’을 제주4.3(제주4·3), 또는 4.3(4·3)으로 명기하였다.
- 3) ‘공산폭동론’이란 제주4.3이 남로당의 폭동 지령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살상을 초래했다할지라도 한국 정부는 제주도에서 공비들과 이에 동조하는 민중들이 일으킨 폭동, 따라서 진압해 마땅하기 그 지없는 폭동을 진압했다는 설명이다. 한경희, 「제주 민중에게 제주 4.3은 무엇이었는가 -민주화 이행기 제주 4.3이 민중항쟁으로 재현되는 과정과 방식」, 우리문화회, 『우리문화연구』 제79호, 2023, p. 482.
- 4)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19호, 1998, pp. 75-78.; 김동윤,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 -현기영의 「순이삼촌」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23권,

이 일로 현기영은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 <해룡 이야기>(1979), <거룩한 생애>(1991) 등을 꾸준히 발표하며 미군정·토벌군·서북청년단 등 지배 세력에 의해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4.3의 비극을 알렸다.<sup>5)</sup> 즉 ‘양민수난사’<sup>6)</sup>에 입각하여 대항기억을 형성한 것이었다.<sup>7)</sup>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열린 민주화 국면에서, 4.3생존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피해를 말하기 시작했다. 국가 주도의 고의적인 망각에 저항하며, 4.3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2003) 발간, 대통령 노무현의 사과, 나아가 제주4.3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이 지정되었다. 4.3은 대한민국 역사로 승인되었다.<sup>8)</sup> 이는 제주가 ‘빨갱이 섬’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가폭력의 비극을 겪은 섬이라는 피해의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바로 현기영이 문학을 통해 줄기차게 고발했던 4.3의 수난과 희생이 공식 역사로 탈바꿈되는 순간이었다.

제주4.3의 기억이 공식 역사로 편입되면서, 국가 또한 4.3의 피해를 규명하고 애도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국가가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할 권한을 가지면서 ‘누구를 희생자로 볼 것인가’라는 차별적인 질문이 생산되었다.<sup>9)</sup> 이는 다시금 반공/분단이

2003, pp. 4-9.

5) 양문규, 「현기영론 -수난으로서의 4.3 형상화의 의미와 문제」,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연구』 제11권, 1998, pp. 202-212.

6) 한경희는 ‘양민수난사’적 입장에 대해 군경과 우익집단의 과잉진압을 비롯해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순박한 양민들까지 무참히 피해를 입은 비극적 사건으로서 제주 4.3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설명하였다. 한경희, 앞의 책, p. 483.

7) 김동윤,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 -현기영의 「순이삼촌」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23권, 2003, pp. 16-17.

8) 양정심, 「배제된 기억 -제주4·3항쟁의 역사」,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6권, 2006, pp. 55-64.

9) 고성만, 「2기 4·3특별법 체제의 쟁점과 난점」,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테올로기를 작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역사의 제단(祭壇)에 희생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였다. 여전히 반공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은 4.3의 자장(磁場)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sup>10)</sup>

국가는 피해·폭력으로 표상되는 4.3의 희생담론이 가진 부정적 은유를 극복하고자 화해와 상생이라는 언어를 동원했다. 바로 ‘평화의 섬, 제주’라는 기획이다.<sup>11)</sup> ‘아픔을 씻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평화의 섬’에 담긴 수사는 4.3을 피해와 희생으로 고정하고 성급한 치유를 요청했다. 이는 화해와 상생에 미래성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4.3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기를 방해하며 또 다른 망각을 요청하는 일이었다.<sup>12)</sup>

문학의 임무가 역사 속 지워진 존재에 목소리를 부여하며 정치적 불화를 만드는 것이라면, 현기영은 분명 반공주의 분단국가와

『통일인문학』 제88권, 2021, pp. 203-207.; 이재승,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57호, 2015, pp. 257-258.

- 10) 이재승은 제주 평화공원의 설립과 동시에 희생자를 재심사했던 국가의 태도가 지속적인 화해는커녕 유족에게 트라우마를 도발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승,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57호, 2015, p. 258.
- 11) 국가정보법령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 2. 21.
- 12) 김성례는 4.3위령제를 통해 구축된 ‘용서와 화합’ 담론이 역사적 진실 논쟁을 억누르고, 국가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는, 또 다른 ‘망각의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조명기와 장세용은 국가의 ‘망각적인 용서’의 기획이 국가의 기억으로 4.3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평화’의 기표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4.3 당시 미군정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범위에서 배제된 무장대에 대한 망각이고, ‘평화의 섬’ 기획아래 추진되었던 국제자유도시와 해군기지 건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망각임을 주장하였다.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제주4·3의 담론정치」, 『근대를 다시 읽는다2』, 역사비평사, 2006, pp. 513-519.; 조명기·장세용, 「제주4·3사건과 국가의 로컬기억 포섭 과정」,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제43권, 2013, pp. 231-232.

의 불화를 피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sup>13)</sup>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매년 국가 주도로 ‘4.3희생자 추념일’을 통해 비극을 꺼안고 음광밭에서 생을 마감한 수많은 순이들을 애도한다. 희생·피해·국가폭력이라는 담론 안에 4.3은 대한민국 화합의 장에 위치되었다. 4.3이 불화에서 화합으로 뒤바뀐 지금, 4.3의 희생담론을 구축하였던 현기영의 문학을 다시 독해함으로써 새로운 불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3을 주제로 한 현기영의 소설을 분석하고, 탈식민주의(post colonialism) 관점에서 해석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기영이 창작한 소설이 4.3의 진실 복원에 이바지했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sup>14)</sup> 현기영의 4.3문학 연구는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작가가 기억하고자 했던 4.3과 문학 활동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4.3과 유사한 국가폭력과 해외의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한 다른 문학 작품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기영의 4.3문학이 가진 특징과 이해를 확장하였다.<sup>15)</sup>

13) 하상복, 「문학의 정치성과 새로운 주체의 상상: 파리콤뮌과 빅토르 위고, 제주 4·3과 현기영의 경우」, 한국NGO학회 『NGO연구』 제15-2호, 2020, pp. 212-213.

14) 김동윤은 현기영의 4.3소설이 초기 피상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순이삼촌〉에서 사태의 비극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설 속 인물 분석을 통해 4.3이 파열시킨 제주공동체 등을 설명했다.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19호, 1998.; 김동윤,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현기영의 「순이삼촌」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23권, 2003.

15) 김동윤,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22-1호, 2002.; 김동윤,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오키나와·타이완·제주 소설에 나타난 폭력과 반(反)폭력의 상상」,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70호, 2020.; 김미향, 「4·3의 진실과 작가의 현실 인식」,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제14-2호, 2023.; 손지연, 「오키나와 전투와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41권, 2015.; 양문규, 「현기영론-수난으로서의 4.3 형상화의 의미와 문제」,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연구』 제11권, 1998.; 음영철, 「역

그중 현기영의 4.3문학을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던 연구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제주 방언을 통해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포착한 연구, 둘째 제주와 국가를 명확히 대립시키면서 양자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연구, 마지막으로 4.3을 ‘탈식민 냉전’에 위치시켜 (신)식민의 저항에 주목한 연구이다.

첫째, 제주 방언을 통해 육지(중심)와 제주(주변)의 경계를 포착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현기영의 문학에 활용된 제주 방언을 통해 육지와 제주의 지리적 구분이 언어라는 문화적 경계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방언은 4.3의 억압에 맞서 자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복원하는데 기여한다. 위의 연구는 제주 방언이 육지에 대한 배타의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제주 방언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주목하였다.<sup>16)</sup>

둘째, 제주(어)와 국가(어)를 명확히 대립시키면서 양자 사이의 위계를 드러낸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탈식민성에 주목하며 표준어(국어)에 포섭되지 않기 위한 문학적 재현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표준어는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상징 폭력이다. 그렇기에 제주 방언의 활용은 근대 국가의 내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제주 방언을 국어의 외부로 인식하면서 방언에 내포된 비타협성을 통해 은폐된 식민주의를 드러내고 이를 돌파하는 연대의 가능성으로 이해한다.<sup>17)</sup>

사적 트라우마의 치료과정-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호, 2013.; 정문권·이희영, 「현기영 소설의 휴머니즘 연구」, 배제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제26권, 2009.; 정홍섭, 「학살의 기억과 진정한 평화의 염원-제주4·3문학」, 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연구』 제22권, 2023.

16) 고동현,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방언 문학 분석이 가지는 가치-현기영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제37호, 2023.; 이명원, 「4·3과 제주방언의 의미작용 - 현기영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9권, 2001.

17) 두 연구는 각각 탈식민주의 지성인 에드워드 사이드와 프란츠 파농의 문

마지막으로, 제주4.3을 ‘탈식민 냉전’에 위치시켜 고찰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현기영이 오랜 기간 육지(제국)의 지배에 저항했던 변방(식민)의 역사를 서술하였고, 식민지배와 미군정의 지배에 주목하며 이에 저항했던 인물과 제주의 공동체를 재현했다는 점에 의의를 찾았다.<sup>18)</sup> 특히 ‘탈식민 냉전’을 사유한 4.3문학이 제도적 성취만이 아니라 제주 민중의 주체성을 상상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sup>19)</sup>

위의 연구는 현기영의 문학 작품에서 내포된 4.3의 로컬리티(locality)와 탈식민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적인 성취를 거두었다.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이하 사이드)가 주장한 중앙권력의 오리엔탈리즘<sup>20)</sup>을 분석하는 작업이자, 변방 주체

---

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정선태, 「표준어의 접령, 지역어의 내부식민지화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시점으로」,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제27권, 2008.; 김동현, 「『표준어/국가』의 강요와 지역(어)의 비타협성-제주4·3문학에 나타난 ‘언어/국가’문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57호, 2015.

18) 고명철, 「현기영의 세계문학, 동아시아의 변경으로서 제주를 넘는다」, 『오늘의 문예비평』 제130호, 2023.; 김동윤, 「현기영의 4·3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의 문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49호, 2015.

19) 더하여 고명철은 ‘탈식민 냉전’의 관점에서 4.3을 재조명한 노력이 ‘제도적 복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독립을 염원했던 정치적 상상력을 추구하는 것이 과제임을 밝혔다. 고명철, 「탈식민 냉전 속 동아시아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67호, 2021, pp. 102-106.

20)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양과 동양의 권력의 편성형태를 연구하며, 서양에 의해 동양에 대한 표상이 확대·(재)생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한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동양을 대상화하며 위계적 관계 아래 담론을 생산할 힘을 쥐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양의 표상이 조작인지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담론권력을 쥔 서양이 동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선의 지배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이드가 주장한 데로 오리엔탈리스트는 담론권력을 쥐고 쓰는 인간이고, 동양인은 쓰이는 인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드가 서양과 동양으로 나눈 지리적 경계를 한반도로 이동하여 육지중앙과 제주변방으로 대체하였다.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스스로 자기 역사와 언어를 찾아가는 투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탈식민주의를 내포한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4.3을 겪은 여성을 재현하는 데 있어 피해자라는 고정된 재현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못했다.

오리엔탈리스트가 담론권력을 쥐고 타자를 기표로 활용하는 힘을 가졌다면, 페미니즘은 그들이 곧 가부장제의 남성 권력이었음을 주장한다.<sup>21)</sup> 민주화 이전 시기 국가는 ‘제주=빨갱이섬’, ‘4.3=공산폭동’으로 표상하며 스스로 반공/분단국가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4.3의 진실을 밝히는 문학에서도 남성은 탈식민적 주체로 세워진 데 반해 여성은 피해자 또는 희생자라는 기표(signifier)로 설정되었다. 즉 포스트/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 포스트/식민의 지배와 동시에 작동했던 가부장성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여성의 목소리는 탈식민주의 해석의 공간에서도 억압된다. 본 연구는 스피박의 ‘서발턴(subaltern)’과 ‘탈식민 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ism)’을 통해 4.3문학의 탈식민주의 해석을 재검토한다.

## 2. 서발턴과 이중의 식민화 -왜 탈식민 페미니즘인가?

1989년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이하 스피박)은 가부장제와 제국의 경합 아래 “서발턴 여성은 말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스피박의 논증을 살펴보면, 서발턴 여성이 인식론적 폭력 아래에서도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진실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이는

21) 남성 권력은 남성성 그 자체를 지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진단하고 정의를 내리며 성의 경계를 만드는 힘(boundary setting)을 의미한다. 정희진, 「한국 남성의 식민성과 여성주의 이론」,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p. 48.

서발턴 여성이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회적 담론 아래 서발턴의 말을 듣지 못하는 청자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질문은 “과연 우리는 서발턴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로 달라져야 한다.

스피박의 관심은 서발턴의 재현이 동반하는 인식론적 폭력을 밝히는 데 있다.<sup>23)</sup> 스피박은 인식론적 폭력이 전개되는 공간을 ‘디페랑(differend)’으로 설명하였다.<sup>24)</sup> ‘디페랑’은 서발턴과 청자 사이의 소통이 지연되는 공간이다. 서발턴과 청자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자 노력하지만, 다른 시·공간에 갇혀있기에 ‘사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디페랑’은 본 연구의 관심 주제인 4.3 여성의 말이 한국사회에 전달 또는 전달 불가능에 놓이는 이유이다. 4.3을 겪은 여성에 대한 피해와 희생을 강조하는 담론이 보편적 서사로 구축되면서, 여성의 발화와 행위는 재현의 (불)가능성에 부닥쳤다.<sup>25)</sup>

그렇다면 제주4.3의 희생담론에 대한 탈식민 페미니즘의 해석은

- 
- 22) 인도의 독립운동가 부바네스와리 바두리의 자살은 수수께끼였다. 그녀는 정치적 요인을 암살하라는 임무에 부담을 느꼈고 끝내 자결했다. 그러나 이 자결은 바두리가 처녀라는 이유로 ‘불륜’으로 왜곡되었다. 스피박은 그녀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바두리가 자살 당시 월경 중이었음을 밝혔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1부 텍스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p. 133.
- 23) “이 ‘인도’라는 단어는 오직 ‘해방’의 대상으로서만 그 발음을 완성해야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 바두리는 죽음이라는 극단에 이르러 결단을 내리려고 했지만, 정의의 결정 불가능한 여성 공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말했지만’ 여자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지금도 듣지 않는다.” 스피박, 앞의 책, p. 46.
- 24) 스피박, 앞의 책, p. 117.
- 25) “정체성의 정치는 피해자성을 근간으로 하며 이를 강조할수록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 피해는 여성의 본질이며 여성은 피해자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성은 또다시 보편성으로 묶이게 된다.” 정희진,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pp. 217-218.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선 본 연구는 현기영 소설 속 제주 여성이 4.3의 국가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점과, 진상규명 운동이 활발해지던 시점에서 그의 4.3소설이 제주만의 기억이 아닌 식민과 분단의 대한민국 역사로 서술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현기영 소설 속 여성이 식민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재현되는 한편, 4.3의 국가폭력에 희생자로 고정된 점을 드러낸다. 둘째, 본 연구는 4.3의 희생담론이 갖는 ‘이중의 식민화’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6)</sup> 이는 현기영 소설 속 여성인물이 식민의 연속적 상황이었던 포스트 식민(분단)을 극복하는 주체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과 더하여 가부장제에 종속된 피해(희생)자로만 재현된 점을 밝히는 것이다.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구축되는 과정은 국가(폭동론)와 도민(항쟁론/학살론)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남성들이 4.3의 역사화를 위해 희생(학살) 담론의 서사로 타협을 이뤘기 때문이다.<sup>27)</sup> 여기서 남성은 피난민, 항쟁 주체, 나아가 군·경 토벌대 등 다양한 군상을 이룬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을 대신하여 가정을 지키다가 군·경 토벌대에게 학살을 당하거나, 때로는 항쟁에 나섰

26) ‘이중의 식민화’란 커스텐 홀리스 피터슨과 애너 리너포드가 언급한 용어이며, 존맥클라우드는 이중의 식민화를 설명하며 여성의 경우 “식민주의적 현실과 재현”, “가부장적 현실과 재현”으로 “두 번의 식민화”를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존맥클라우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애플러스, 2003, pp. 203-204.

27) 양정심은 4.3의 진상규명 운동이 국가의 공식 기억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양민학살’을 지배적 담론으로 구축하며 항쟁의 기억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성례는 공산폭동론과 항쟁론이 대립하면서도 ‘폭력을 정당화’하는 동일한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지적했다. 1994년부터 시작된 ‘4·3희생자 합동위령제’는 ‘폭동’과 ‘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봉행될 수 있었다. 이는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ing mechanism)’의 입장에서 반공주의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신성성의 아우라를 입혀 ‘희생적 질서(the sacrificial order)’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설명된다. 김성례, 앞의 책, pp. 497-510.; 양정심, 앞의 책, pp. 55-64.

던 이들에게도 ‘반동’으로 지목당하여 피해를 보았다. 여성학에서 밝힌 4.3 여성이 겪은 피해의 다층화 작업<sup>28)</sup>과는 별개로, 이러한 희생담론은 여성을 피해자(희생자)로 고정하였다. ‘여성=피해자’라는 제한된 인식은 4.3의 희생담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시에 변혁의 의지를 갖고 해방정국에 참여했던 여성의 기억을 소거했다.<sup>29)</sup> 이는 페미니스트 역사가 조앤 스콧(Joan W. Scott)의 주장에 따라, 역사가 여성의 종속이나 배제를 정당화하는 지식 생산에 참여해 왔음을 인정하고, 남녀 이분법에 따라 서술된 역사의 정치적 성격을 폭로하여 역사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up>30)</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현기영의 작

28) 여성학의 경우 전쟁/제노사이드에서 남성의 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주변화 되는 여성의 경험을 발견하고 이를 기록하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홀어명, 순경각시, 좌익 활동가의 유가족 여성 등의 구술을 통해 제주4.3의 다층적 피해를 밝혔다. 더하여 젠더 폭력으로 4.3을 독해함으로써, 남성이 겪었던 성폭력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은실, 「4·3 홀어명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49-3호, 2016.; 권귀숙,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 -제주4·3의 여성사」, 제주4.3연구소, 『4·3과역사』 제11호, 2011.; 권귀숙,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45호, 2014.; 박상관,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각시」, 한국어문학회 학술포럼,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5권, 2019.;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염현주, 「제주4·3홀어명 마을의 여성 생애사 연구 -서방이신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74호, 2023.; 이정주, 「4·3에 관한 생애사로 읽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7권, 2000.; 장숙원, 「제주4·3과 젠더기반폭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36-1호, 2024.; 정원옥, 「끝나지 않은 애도: 4·3사건 피해 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제주4.3연구소, 『4·3과역사』 제16호, 2016.

29) 남성 중심 가부장제가 원하는 여성의 고정된 성 역할을 구축하며, 나아가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 구도를 강화한다. 정희진, 앞의 책, p. 224.

30) 조앤 스콧, 「여성의 역사」, 『젠더와 역사의 정치』, 후마니타스, 2023, pp. 58-61.

품을 분석할 것이다. 현기영의 작품 중 4.3을 주제로 한 중·단편 소설은 총 11편이다. 이중 여성이 서사의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은 〈순이삼촌〉(1978),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 〈해룡이야기〉(1979), 〈거룩한 생애〉(1991)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작품은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와 〈거룩한 생애〉(1991)이다. 두 작품 속 여성이 서사를 직접 이끄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말하기와 재현의 (불)가능성을 다루기에 적합한 소설이며, 즉 현기영 소설을 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를 제공한다.

〈표 1〉 4.3역사를 주제로 한 현기영 중·단편<sup>31)</sup>

제목	연도	여성주요인물	단편집 수록
아버지	1975	X	『순이삼촌』
순이삼촌	1978	주인공의 삼촌	『순이삼촌』
도령마루의 까마귀	1979	귀리집(본인)	『순이삼촌』
해룡이야기	1979	주인공의 엄마	『순이삼촌』
길	1981	X	『아스팔트』
잃어버린 시절	1983	X	『아스팔트』
아스팔트	1984	X	『아스팔트』
거룩한 생애	1991	간난(본인)	『마지막 테우리』
목마른 신들	1992	X	『마지막 테우리』
쇠와살	1992	X	『마지막 테우리』
마지막 테우리	1994	X	『마지막 테우리』

31) 1994년 발표된 〈고향〉 또한 4.3과 관련된 소설로 소개된다. 〈고향〉은 4.3사건을 겪고 고향을 떠나 육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고단하게 살아온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여성은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보면서 제주를 떠난 경험으로서 실향민의 애환에 공감한다. 본고는 〈고향〉이 4.3역사 그 자체를 다루기보다 80년대 민중의 생활과 애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논증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더하여 3장과 4장에 나오는 예문의 굵은 표시는 필자 본인이 강조한 것이다.

〈표 1〉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현기영의 대다수 4.3 관련 작품은 작가 본인을 대표하는 남성을 화자로 내세운 것에 반해, 해당 두 작품은 여성 민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현기영이 표준어·중앙·제국에 맞선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민중을 작품 속 주인공으로 세울 때는 남성 지식인으로서 갖는 재현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두 작품 속 여성 주인공의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 4.3을 겪은 여성의 말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를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역사 바깥에 놓인 여성들의 삶에 다가가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탈식민 서사로서 제주 여성의 말

#### 1) 제주 여성의 말로 조명되는 국가폭력

현기영의 단편 소설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와 〈거룩한 생애〉(1991)는 여성이 소설 속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도령마루의 까마귀〉와 〈거룩한 생애〉는 ‘귀리집’이라는 여성과 ‘간난’이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서사를 이끈다.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순이삼촌〉의 뒤를 잇는 작품이다. 현기영은 〈순이삼촌〉을 발표한 뒤 보안사로 끌려갔다. 현기영에게 4.3이란 어린 시절 자신이 목격했고, 이후에도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이자, 개인적으로는 콤플렉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현기영의 문학 활동은 4.3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로하고, 억압된 기억을 해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국가는 고문과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4.3의 기억을 침묵시키려 했다. 그의 작품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4.3의 진실은 다시 감금되었다. 반공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저항하는 말은 곧 ‘빨갱이(폭동)’의 언어로 해석되었다.

현기영의 작품 속 제주의 토속어와 방언은 고향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면서도 4.3의 진실을 계승한다.<sup>32)</sup> <순이삼촌>에서는 제삿날에 가족들이 모여 4.3의 기억을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서북청년단 출신인 고모부는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하며 4.3을 지난 일로 치부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주인공은 고모부의 의견을 반박하는 발화로 방언을 사용한다. 주인공인 ‘나’는 서울출신인 아내가 순이삼촌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해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점을 감지하며, 아들에게 ‘고향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주 사투리’를 가르친다.<sup>33)</sup> 이처럼 4.3소설에서 토속어와 방언은 제주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4.3 당시 전개된 학살과 국가폭력의 기억을 계승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산폭도가 양민 가운데 숨어살기를 머뭇니 **결바시** 현 머리에 서캐 쓸 듯 하니 어느새 하세월 뽕빛으로 굵으니며 가랑니며, 서캐를 훑어 내 잡을 것이냐. ... 머뭇니 잡는다고 생사람 잡는 게 **소까이**란 말인가. 집과 양식이 불타고, 소개민 중에는 폭도 가족이라고 지목된 여편네들이 여럿 죽고 심지어는 **할망, 할오방**마저 더러 죽었다. -〈도령마루의 까마귀〉, 93-94쪽.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 귀리집의 발화는 제주 특유의 토속어

32) <순이삼촌>뿐만 아니라, <해룡이야기>에서 고향인 제주는 ‘깊은 우울증과 찢든 가난밖에 남겨준 것이 없는 곳’, ‘죽은 마을’, ‘소각된 잿더미’, ‘떼죽음을 당한 마을’등 4.3의 살육과 폭력에 의해 황폐해진 터전으로 설명된다. ‘섬놈임을 노출’함으로써 ‘이로울 게 없는’, 되레 ‘처신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고향은 일종의 낙인과도 같은 것이다.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3(1979, 개정판 11쇄), p. 39.; 현기영, 『해룡이야기』, 『순이삼촌』, 창비, 2013(1979, 개정판 11쇄), pp. 133-137.

33) 현기영, 앞의 책, pp. 48-78.

로 전달된다.<sup>34)</sup> 걸인을 뜻하는 ‘걸바시’와 소개를 말하는 ‘소까이’, 노인을 지칭하는 ‘할망, 할으방’과 같이 토속어가 있는 그대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토속어는 제주도민을 제외하고는 독자에게 해석에 곤혹을 준다. 이전 〈순이삼촌〉에서도 토속어와 방언이 활용되었지만,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가정을 꾸린 중산층 남성 주인공이 이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도령마루의 까마귀〉보다 난해함이 덜하다. 즉 4.3의 비극이 남성 주인공의 발화(표준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하지만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귀리집이 서사를 주도하면서 토속적인 표현 그대로의 4.3이 독자에게 전달된다.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는 피해당사자인 ‘여성(귀리집)’이 서사를 이끄는 주인공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남성 주인공을 통해 순이삼촌이 겪은 4.3의 국가폭력이 재구성된 것과 달리,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국가폭력의 당사자인 귀리집이 직접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을 현실적으로 묘사한다.<sup>35)</sup> 귀리집은 화자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겪은 집단 사살과 방화, 순경에 의한 성폭력, 굶주림과 갇난아기의 죽음, 가족의 상실에 따른 불안 등을 실감나게 전달한다. 즉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제주 여성의 말로 국가폭력의 참상을 생생하게 고발한 작품으로, 4.3의 피해를 보다 현실감 있게 그려냈고, 더하여 국가가 억압하고자 했던 4.3에 대한 기억투쟁을 이어갔다.

34) 김원일은 〈도령마루의 까마귀〉는 4.3을 ‘역사적 현재의 수법’으로 다루면서, ‘극한에 상황에 놓인 주인공 귀리집’이 ‘토속적인 질박한 언어로’ 4.3의 비극을 진술하였다고 평가했다. 김원일, 「진실에의 치열성」, 『순이삼촌』, 창비, p. 311.

35) 임규찬, 「제주도적인 역사적 삶의 조감도-현기영의 작품 세계」, 『아스팔트』, 창비, 2015(개정2판 1쇄, 1986), pp. 439-440.



## 2) 제주의 기억에서 탈식민·분단의 서사로

〈거룩한 생애〉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현기영이 발표한 4.3관련 단편이다. 또한 이 시기는 그 이전부터 축적됐던 제주4.3의 진상규명 운동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던 때였다. 이전까지 4.3은 제주 사람만이 쉬쉬하며 간직한 기억이거나, 국가가 주조한 ‘폭동론’에 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反逆)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월 항쟁을 통한 사회의 민주화는 4.3의 진실회복 운동을 촉진하였고, 국가의 공산폭동론과 경합할 수 있는 국면(局面)을 펼쳤다. 이는 4.3을 국가폭력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함께 민족민주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sup>36)</sup>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현기영의 작품에서 4.3을 해방 전·후의 식민과 분단의 역사와 연결 짓는 서사로 나타났다.

저번날 소까이 지역에 들어갔다 오다가 들켰을 때 저 작자는 지서로 끌고 가 **넛뽀도 칼날**을 뒷목에다 대고 무섭게 닦달해댔다. -〈도령마루의 까마귀〉, 91쪽.

**조합 서기놈들과 맞서는 것은 두려운 만큼이나 가슴 뿌듯하게 보람찬 일**이었다. 언제나 **왜놈** 서기보다 그 **앞잡이인 조선놈** 서기가 한술 더 떠 설쳤다. -〈거룩한 생애〉, 47쪽.

〈거룩한 생애〉의 전체 내용에서 식민의 역사에 관한 서술은 2/3가량이 할애되면서, 4.3과 식민의 역사에 강력한 고리를 형성하였다. 물론 〈거룩한 생애〉 이전 작품에서도 식민과 관련된 내용

36) 김영범은 4.3이 사회의 민주화 국면과 함께 진실회복 운동이 시작되면서 기존 공산폭동의 해석에 대항하며 국가폭력의 범죄 또는 민족민주운동의 일환으로써의 민중항쟁으로 4.3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기억투쟁으로서 4·3 문화운동 서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2호, 2003, pp. 73-80.

이 간혹 있었지만, 이를 서사로 전개한 작품은 1983년 발표된 <잃어버린 시절>뿐이고 여기서도 전체 분량에 1/3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도 제주4.3의 가해자인 까마귀 오가 ‘닛뽀도 칼날’로 귀리집을 협박하는 장면을 통해 해방 이후에도 식민의 인적 자원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마저도 짧게 언급될 뿐이다.

<거룩한 생애>에서는 여성 주인공인 간난의 생애를 통해 4.3의 비극뿐만 아니라 식민지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설명하였다. 간난은 식민지 어업조합에 수탈을 겪지만 이에 맞서 저항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잠녀(해녀)로 그려진다. 식민권력은 감태의 공출 수량이 적자 간난과 동료 해녀들에게 단체기합을 주는데, 이에 해녀들이 달려들어 조합서기를 혼쭐을 내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지만 간난은 이 일로 주동자로 찍혀 구류를 살게 되었다.(<거룩한 생애>, 50쪽). <거룩한 생애>에서 여성들은 저항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과 달리, <잃어버린 시절>에서의 인물들은 노력동원과 공출에 ‘앓는 소리’와 불평만 늘어놓는다. 또한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의 귀리집도 까마귀 오를 그저 무섭고 두려워할 뿐이다. <거룩한 생애>에서 간난의 생애는 수탈과 저항으로 대표되는 식민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하며, 4.3의 비극 또한 식민의 역사와 연결된다. 즉 4.3의 비극이 제주의 섬에서 벌어진 피해가 아닌 식민과 저항의 대한민국 역사로 조명되는 것이다.

민심이 극도로 흥흥한 가운데 이듬해 읍내에서 **삼일운동 기념대회**가 열려 태극기와 마을기를 앞세우고 모여든 이만 군중이 이런 세상 못살겠다고 “완전 독립”을 외쳤다. 일제 대신 **다른 외국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한 진정한 해방은 아니며** 이제부터 진짜 해방을 준비해야한다고, 사기그릇 깨지면 여러 조각 나지만 삼팔선이 깨지면 한덩어리가 된다고 온 읍내가 떠나가라고 기염을 토했던 것이다. -<거룩한 생애>, 59쪽.

이듬해 3·1독립운동 기념일날 **좌익은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과시할 요량**으로 읍내의 북국민학교 운동장에 이만 군중을 동원, 대중집회를 열고 파쇼타도와 반미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 발포로 여섯명의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잃어버린 시절〉, 23쪽.

현기영의 4.3 중단편 소설에서 해방과 분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4.3의 발단이자 기점으로 인식되는 ‘1947년 3.1기념대회(이하, 3.1대회)’에 대한 서술이다.<sup>37)</sup> 〈거룩한 생애〉는 현기영의 4.3 소설 중 처음으로 민족민주운동에 입각한 민중항쟁으로 4.3을 인식하며,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의 지향을 소설에 담았다. 이는 이전 작품과 다르게 4.3의 피해를 겪은 인물 자체를 조명하기보다, 4.3을 사건화하고 역사화 하는 작업이었다. 소설 속 3.1대회와 관련된 서술은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였다.

〈거룩한 생애〉에 앞서 〈잃어버린 시절〉에서도 1947년 3.1대회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절〉에서의 3.1대회는 ‘좌익’의 ‘역량 과시’로 설명되며, 항쟁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여기서 항쟁의 상징인 ‘왓샤’는 ‘패가망신할 위험천만이 불장난’, ‘좌익병’등 부정적으로 은유된다. 항쟁은 개혁과 자주적 의지로 표명되기보다는 ‘습격’, ‘방화’, ‘피살’로 묘사되며, 급기야는 섬을 ‘공포와 죽음의 이수라장’으로 몰아넣는 부정적인 결과로 그려졌다. 〈거룩한 생애〉에서는 외세인 미군에게 분단의 책임을 묻고 통일정부 수립을 강조하는 반면, 〈잃어버린 시절〉에서는 조선의 독립이 미군의 참전에 따른 일본의 패전으로 설명되었다.

3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3·1사건과 무장봉기의 전조」,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p. 102.

〈표 2〉 4.3 역사를 주제로 한 현기영 중·단편 중 1947년  
3.1 기념대회와 분단문제 서사

제목	연도	1947년 3.1 기념대회	4.3과 분단(통일)문제
아버지	1975	X	X
순이삼촌	1978	X	X
도령마루의 까마귀	1979	X	X
해룡이야기	1979	X	X
길	1981	X	X
잃어버린 시절	1983	O	X
아스팔트	1984	X	X
거룩한 생애	1991	O	O
목마른 신들	1992	O	O
쇠와살	1992	O	O
마지막 테우리	1994	X	O

〈표 2〉에서 확인되듯, 현기영은 1987년 이후 4.3과 관련된 중·단편 소설에서 1947년 3.1대회를 서술하거나 단독정부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 등 분단문제를 꾸준히 소개했다.<sup>38)</sup> 이는 4.3을 개인의 피해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 해방 전 식민의 역사와 함께 해방 후 분단의 역사로까지 연결하는 작업이었다.<sup>39)</sup> 〈거룩한 생애〉

38) 김소영은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민주화의 이행, 사회주의권 붕괴, 냉전의 종식, 신자유주의 가속화 등에 따라 분단문학이 쇠퇴하였지만, 제주의 경우 4.3의 진상규명 운동이 촉발되면서 본격적으로 ‘민족자주·통일’, ‘반미·반제’, ‘민중해방’ 등의 테제가 문학장에 등장했음을 밝혔다. 김소영, 「4·3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문학적 재현의 새로운 모색 -민주화 이행기 4·3소설에 나타난 항쟁 담론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 제96호, 2024, pp. 626-629.

39) 〈목마른 신들〉(1992)에서는 3.1대회 서사를 통해 해방 정국 당시 민중의 구호였던 ‘양과자 먹지말자’, ‘미군철수 신탁통치 반대’, ‘왜놈 머슴살이 대신 미군놈 머슴살이하게 되었다’ 등이 나열되며 ‘단독정부가 아닌 통일정부’를 만드는 일이 ‘국민된 도리’임을 강조한다. 〈쇠와살〉(1992) 또한 해방 이후 친미세력과 친일부역자가 득세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당시 초

는 간난의 생애를 통해 제주4.3을 식민에서 분단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맥락으로 설명한 첫 작품이었다. 이를 두고 간난(여성)을 탈식민적 의지를 지닌 인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40)</sup> 하지만 소설 속 여성의 주체성은 식민의 서사에서만 재현될 뿐, 해방 후 4.3의 정국에서는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 고정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식민지 어업조합에 대한 간난의 항의는 그녀의 주체성이 남편과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1)</sup>

#### 4. 가부장제에 얽매인 여성서사와 재현의 (불)가능성

##### 1) 저항주체에서 배제된 여성

콩나물시루 속 같은 차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승객끼리 건국문제, 시국형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져 있었다. 남편이 토론에 한몫 끼여들고, 간난이도 삼팔선 넘어온 값을 하느라고 종긋 귀를 세워 이야기를 들었다. -〈거룩한 생애〉, 57쪽.

---

토화 작전을 반대한 김익렬 연대장의 해임과 경찰총수 조병옥과 9연대 연대장인 박진경, 그리고 그 뒤의 미국의 정책집행자들이 초토화 작전의 지시자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4.3항쟁 세력에 대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했던 ‘애국자’로 지칭된다. 〈마지막 테우리〉(1994)에서도 주민들이 단독정부를 수립에 반대하여 투표를 보이콧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고 설명한다. 위의 세 작품 모두 『마지막 테우리』에 실렸다.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2006(개정 1쇄, 1994).

40) 김동윤, 「현기영의 4·3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의 문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49호, 2015, p. 357.

41)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0집, 1994, pp. 35-36.

간난은 남편의 강제징용을 막기 위해 육지 물질의 인솔자로 남편을 선정하여 금강산으로 떠났다. 위의 인용 문장은 간난 일행이 해방되자 제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간난은 삼팔선을 넘으면서 미군을 만났는데, 미군은 여성들의 치마와 저고리를 들치며 DDT를 뿌려댔다. 미군의 통역을 맡은 조선인은 미군의 행위를 ‘소독’해준 것이니 ‘고맙게’ 여기라면서, 이복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간난 일행의 사상을 의심한다.

하지만 미군의 만행을 비판하는 자는 간난이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다. 남편은 미군의 검문을 ‘수치’며 자신(일행)을 ‘야만인’으로 취급했고, 이는 ‘민족적 모욕’이었다며 분노한다. 하지만 검문 과정에서 미군에 의해 치마까지 들쳐졌던 간난은 ‘질색’, ‘비명’으로 밖에 상황을 언어화하지 못한다. “마치 남의 나라 땅에 잘못 밟을 들여놓은 듯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라며 미군을 바라보는 간난은 남편과 다르게 불안에 떨고 있다.(<거룩한생애>, 56쪽). 이러한 간난의 모습은 식민지시기 어업조합의 착취에 맞선 모습과 사뭇 다르며, 오히려 귀리집이 ‘까마귀 오’에 가졌던 두려움과 유사하다.

간난이 식민지시기 어업조합의 부당함에 맞선 이유도 “저울눈 볼 줄 모르고 장부책 볼 줄 모르니까 저놈(어업조합, 필자)들이 맘대로 속이는 것 아닙니까(<거룩한 생애>, 46쪽)”라는 남편의 질타 때문이었다. 간난의 남편은 ‘무산자’, ‘스트라이크’, ‘착취’, ‘투쟁’이라는 언어를 구현할 줄 아는 일제에 저항적인 지식인이다. 남편이 저항지식인이 되는 경로는 자연 발생적이지만, 간난은 계몽 주체인 남편을 만나면서 부당함에 맞설 방법을 터득하는 ‘아내’로 그려진다. 이마저도 식민권력 그 자체에 저항하기보다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거룩한 생애>, 46쪽)’ 위한 경제적 이유로 어업조합에 맞설 뿐이다. 해방을 맞아 귀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건국문제’, ‘시국형편’에 대해 토론하는 주체는 지식인 남편이다. 여기서도 간난은 ‘삼팔선 넘어온 값’을 하느라 귀동냥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거룩한 생애〉는 해방정국 당시 분단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4.3의 투쟁성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인물은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해방정국에서 남편은 청년회의 간부가 된다. 4.3이 촉발되면서 남편의 친구들은 입산하여 단독선거 반대 투쟁에 나섰고 남편도 이를 적극 지지하지만, 병세 악화로 항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거룩한생애〉, 58-62쪽). 소설의 58쪽부터 전개되는 해방정국에 대한 설명과 1947년 3.1대회, 4.3의 국가폭력 등의 서사에서는 간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가, 고문으로 폐병에 걸린 남편을 보살필 때서야 아내로 등장한다. 여기서 간난이 수행한 돌봄이란 혁명적 정세와 결부된 행위가 아니라, 가부장제 아래 아내의 역할이다. 간난은 4.3의 항쟁 서사 밖에서 배회한다.

간난이든, 귀리집이든 작품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제주 여성으로 표상되지만, 이들의 역척스러움은 가부장제의 자장 밖으로 나설 수 없다. 토벌대와 ‘산폭(항쟁을 위해 입산한 자)’에게 비극의 책임을 동시에 물었던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도 산폭에게 입산요구를 받는 이는 귀리집의 남편이다.(〈도령마루의 까마귀〉, 116쪽). 귀리집의 남편은 항쟁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귀리집은 남편의 선택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귀리집은 산에 오른 남편을 걱정하다 죽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는 존재로, 간난은 지식인 남편의 저항이 좌절되자 그의 곁에 머무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두 여성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은 4.3항쟁과 결합하지 못한 채 가부장제 안으로 수렴되고 만다.<sup>42)</sup>

42)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개인이기보다 가족 내 성원으로서 위치가 우선시되면서 개인의 인권보다 성역할이 강조된다. 정희진, 『한국 남성의 식민성과 여성주의 이론』,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p. 51.

## 2) 가부장제와 비극으로 고정된 여성의 서사

〈거룩한 생애〉에는 해녀 물질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간난이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간난이 시집에서 출가함으로써 반발하자,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간난의 물질을 허락한다. 이후 시댁의 가세가 기울자, 간난의 물질이 집안에 유일한 별이가 되었다. 물질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간난에게 연신 고마워한다. 조한혜정은 한국이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의 편입으로 화폐 경제가 도입되고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제주의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제주 해녀 사회에 남녀 양편 비우세적 성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하였다.<sup>43)</sup> 한편 권귀숙은 제주 해녀를 상징하는 ‘근면함’이란 강도 높은 노동과 가사의 책임 모두를 짊어졌던 여성의 기표이며, 해녀의 지위는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만큼 높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sup>44)</sup>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간난의 물질은 전통과 근대의 전환 속에서 성(性)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부장제의 지속성을 드러낸다.

“이 늙쟁이 할망이 죽젠 환장했구나. 반동새끼를 강알로 싸놓은 주 제풀에 뿔이 죄가 없어?” -〈도령마루 까마귀〉, 121쪽.

“죄라면 서방 잘못 만난 죄 ... 기어이 데려갈 태면 날 데려갑서. 그런 자식을 낳은 이 에미 죄가 더 크우다.” -〈거룩한 생애〉, 64쪽.

43) 양편 비우세 사회란 여성 지배적 현실과 남성 우월적 의식 세계가 공존하는 사회로, 엄격한 성 역할 규범과 공공/가정의 구분에 있어 세계에 편재한 대부분의 남성 중심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조를 같이한다. 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9쇄: 1993) pp. 290-315.

44)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화 -조혜정교수의 제주도 해녀 사회 연구의 ‘글읽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0호, 1995, pp. 230-232.



간난의 남편은 병세 악화로 항쟁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그를 잡으러 ‘검은 제복의 두 사내’가 집안에 들이닥치자는 스스로 자결한다. 여기서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로 추정된다. 귀리집의 남편은 항쟁 세력에게 ‘반동새끼’로 지목당하며 끝내 주검으로 발견된다. 반동이든, 빨갱이(항쟁)든, 두 남자는 이데올로기 안에 호명된 존재이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여기서 여성은 남성 가부장의 선택에 따라 군·경·토벌군과 항쟁(좌익) 세력으로부터 죄인으로 전락한다. 현기영 소설 속 여성들은 항쟁에 참여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내릴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간난의 경우 남편을 잃은 후 경찰에 의해 잡혀가 총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 죄 또한 4.3이 아닌 식민지 시기 어업조합에서 싸웠다는 이유와 남편의 강제징용을 막기 위해 도피했던 금강산(이북) 생활 때문이었다. 간난이 ‘불온분자’로 위치되는 이유는 4.3과는 관련이 없다. 때문에 간난은 4.3에서 무고하고 억울한 희생자일 뿐이다.

한편 <도령마루의 까마귀>와 <거룩한 생애>를 제외하고도 현기영의 4.3소설에서 여성이 주요인물로 등장하지만, 비극의 서사 아래 희생자로 위치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순이삼촌>에서의 순이삼촌은 4.3으로 자식을 잃고 오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식의 무덤인 옴팡밭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해룡이야기>에서의 문중호의 어머니는 ‘반반한 외모’ 때문에 ‘토벌군과 뜨내기살림’을 차림으로써 4.3 정국에서 목숨을 건지지만, 이는 친척들에게 ‘치욕’이자, 오랜 기간 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문중호의 어머니는 4.3의 살육을 피하고자 원치 않은 결혼을 하였고, 이 결혼 생활도 일 년 몇 달도 안 되어 파탄나면서 평생 홀어머니로 살았다. 이는 4.3을 살육의 국가폭력으로 해석하기보다 성폭력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소설 속 여성 인물 모두 4.3의 비극과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일관되게 고정되었다는 지

적을 피할 수 없다.

반면 현기영 소설 속 남성은 피해자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거룩한 생애>의 남편처럼 청년회에 들어가서 항쟁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잃어버린 시절>의 종수처럼 경찰이 조직한 주민자치 조직인 민보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폭도새끼’라는 낙인을 벗어던지기도 한다. <순이삼촌>의 화자는 순이삼촌이 겪은 4.3의 폭력이 무엇이었는지 듣는 청자(聽者)이자, 4.3의 국가폭력을 주장하는 화자(話者)이다. 1980년대 발표된 <길>과 <아스팔트> 두 작품에서 주인공은 4.3의 가해자가 지닌 트라우마를 살핌으로써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을 가로지르며 용서하는 인물이다. <목마른 신들> (1992)에서 주인공은 심방으로서 4.3의 원혼을 위한 진혼굿을 치르며 치유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같은 해 발표된 <쇠와살>에서는 4.3 당시 벌어졌던 죽음과 폭력을 기록함으로써 진실규명의 주체로 인식된다. 즉 현기영의 소설 속 남성은 여성과 달리 피해자의 형상을 넘어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탈식민적 주체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담론의 균열과 발견되는 4.3여성의 주체성을 예고하며

역사의 정의란 피해의 증명과 가해의 처벌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역사를 마주하고 경험했던 다양한 존재들의 기억을 통해 지속적인 성찰의 지점을 마련할 때만이 정의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은 기존의 지배적인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4.3에 있어 공산폭동을 주장하며 망각을 강요했던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4.3의 고통과 희생의 기억을 담론화한

작업은 분명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4.3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을 봉쇄하였고, 여성의 경우 희생자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sup>45)</sup>

희생담론을 수용한 제주4.3의 공식 역사는 그 시작을 1947년 3월 1일로 두고 있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주최로 진행된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는 3만 명 이상의 도민이 모일 정도로 해방공간에서의 변혁의 열망을 보여준 날이었다.<sup>46)</sup> 미군정은 제주에 충남·북 응원경찰 100여 명을 증파했고, 시위를 불허한다는 방침 등을 내세우며 긴장 관계를 고조시켰지만, 해방공간에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이들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sup>47)</sup>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3.1대회는 도민의 절대적 지지 아래 성사되었다.<sup>48)</sup>

3.1대회 후 전개된 1만 명가량의 대규모 가두시위에 21세 여성 박재옥도 함께였다. 그녀는 등 뒤에 아이를 업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시위에서 경찰의 총탄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후 이 죽음은 4.3의 비극과 희생의 서사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과연 죽음을 맞이하고자 자신의 아이까지 업고 투쟁에 나서는 여성이 존재할까. 비극과 희생의 서사에서 벗어나 박재옥의 행위를 읽자면, 아이와 함께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자 3.1대회의 행진에 나서는 여성의 모

45) 손지연은 현기영의 <순이삼촌>에서 전개된 양민의 희생을 극대화하는 서사는 4.3을 공산폭동이라는 견고한 틀을 (재)확인하는 결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손지연, 「오키나와 전투와 제주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41권, 2015, p. 28.

46) 양정심, 「1947년 제주3·1기념대회 주도세력에 대한 소고」, 제주4.3연구소, 『4.3과역사』, 제17권, 2015, pp. 183-186.

47) 민청과 더불어 부녀동맹은 제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 봉건적 억압에 벗어나기 위한 여성해방 등을 제시하며 대중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들은 연락업무와 빠라살포 등 3·1대회 성사를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1947년 3·1대회에 '제주도 개벽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일 수 있었다. 양정심, 앞의 책, pp. 202-204.

48) 양정심, 앞의 책, pp. 208-215.

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4.3이 박재옥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할 의미는 비극만이 아닌, ‘그녀가 어떤 열망을 품고 해방으로 들끓는 거리에 나섰는가’일 테다.

이제야 제주의 해방정국에서 주체로 서고자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2019년 4.3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에 출연한 박순석(제주읍 화북리)은 4.3 당시 20세의 나이로 제주의 남로당에 가입하여 사회주의를 학습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5.10선거 전날인 5월 9일에 입산하였고, 그곳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부식품을 점검하는 ‘총무’를 맡았다. 여기서 부식품 점검이란 물자를 관리하는 것만이 아닌, 항쟁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물품의 경로를 확인하여 마을에 남아있는 인자를 점검하고, 이를 중앙 조직에 보고하는 즉 조직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녀는 그때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보태니까 얼마나 좋은고. 난 그렇게 생각한거야.”라며 70년이 지났어도 변함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sup>49)</sup>

1947년 당시 36세였던 김진언(조천면 북촌리)도 남로당(조선공산당) 당원이자 민주여성동맹(여맹)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녀 또한 1947년 4.3 당시 부락에서 여성들을 만나며 여성선진 사업을 수행했고, 조천 오일장에 내려와 보급관계, 재정관계, 여성동태 등을 파악하며 항쟁에 참여했다. 1949년 5월 결국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였을 정도로 끝까지 투철하게 싸웠다. 그녀는 자신의 육촌동생이자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부 제주도위원회의 부녀부에 있던 김진선에 대해 ‘태도나 마음이 흠잡을 데가 없고’, ‘대중연설도 탁월하여 남녀노소 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억함으로써 4.3의 해방정국에서 여

49) <돌들이 말할 때까지>, 2024, 다큐멘터리, 한국, 10분, 감독: 김정만.

성들 각자 주체적 역할을 하였음을 증언하였다.<sup>50)</sup>

박순석, 김진언, 김진선 등은 자유와 변혁의 의지가 꿈틀대는 제주의 해방정국에서 주체가 되고자 했던 여성들이었다. 김진언은 1987년 4.3의 기억을 증언하면서 채록자인 양경인에게 ‘내가 죽으면 발표하라’라는 당부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그녀가 세상과 작별하고도 20여 년이 세월이 지나야 가능했다. 이는 그들의 꿈을 ‘남로당’으로 경유하여 해석하고자 했던 한국사회의 반공의 그림자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4.3문학의 탈식민주의를 지향했던 현기영의 소설에서조차 여성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로만 고정될 뿐 변혁의 꿈을 간직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4.3을 국가폭력의 역사로 가두고 제주의 여성을 희생자로만 인식한 채 다른 기억들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김진언은 (양)성평등 세상과 무계급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해방 운동에 참여했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항쟁에 휘말렸다.<sup>51)</sup> 4.3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여성들의 증언은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졌던 국가폭력의 원인과 피해의 규모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 당시 여성들이 간직했던 꿈과 열망을 발견하는 작업이야말로 ‘4.3의 진상규명’임을 일러주고 있다. 한국사회는 ‘여성=희생자’로 코드화한 4.3의 희생담론을 넘어설 때만이 분단된 국가를 막고자 했던 여럿의 간절함과 여성도 아이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야말로 해방된 세상이라 믿었던 여성 주체의 걸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0) 김진언은 김진선이 아이를 죽이라는 조직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 밤에 마을로 내려가는 중 경찰의 초에 맞아 죽었다고 증언했다. 양경인, 『선창은 언제나 나의 뒤편이었다』, 은행나무, 2022.

51) 김진언은 ‘일부일처제’를 실시하여, ‘후세에는 울고 웃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축첩제 폐지는 여성해방 운동의 주요 의제였다. 양경인, 앞의 책, p. 144.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3 (개정판11쇄: 1979). (『도령마루의 까마귀』)  
현기영, 『아스팔트』, 창비, 2015 (개정2판1쇄: 2015).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창비, 2006 (개정판6쇄: 1991). (『거룩한 생애』)

### 논문

- 고동현,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방언 문학 분석이 가지는 가치 -현기영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제37호, 2023, pp. 159-188.  
고명철, 「탈식민 냉전 속 동아시아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67호, 2021, pp. 101-125.  
고명철, 「현기영의 세계문학, 동아시아의 변경으로서 제주를 넘는」, 『오늘의 문예비평』 제130호, 2023, pp. 43-66.  
고성만, 「2기 4·3특별법 체제의 쟁점과 난점」,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제88권, 2021, pp. 193-221.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19호, 1998, pp. 96-89.  
김동윤,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22-1호, 2002, pp. 167-206.  
김동윤,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현기영의 「순이삼촌」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23권, 2003, pp. 1-20.  
김동윤, 「현기영의 4·3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의 문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49호, 2015, pp. 335-365.  
김동윤, 「역동하는 섬의 상상력-오키나와·타이완·제주 소설에 나타난 폭력과 반(反)폭력의 양상」,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70호, 2020, pp. 7-40.  
김동현, 「‘표준어/국가’의 강요와 지역(어)의 비타협성-제주4·3문학에 나타난 ‘언어/국가’문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57호, 2015, pp. 93-115.  
김미향, 「4·3의 진실과 작가의 현실 인식」,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제14-2호, 2023, pp. 17-30.

- 김소영, 「4·3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문학적 재현의 새로운 모색-민주화 이행기 4·3소설에 나타난 항쟁 담론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학회, 『한국문화논총』 제96호, 2024, pp. 619-662.
-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기억투쟁으로서 4·3 문화운동 서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2호, 2003, pp. 67-104.
-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0집, 1994, pp. 18-52.
- 김은실, 「4·3 홀어머니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49-3호, 2016, pp. 313-359.
-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화-조혜정교수의 제주도 해녀 사회 연구의 ‘글 읽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0호, 1995, pp. 229-233.
- 권귀숙,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제주4·3의 여성사」,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1호, 2011, pp. 65-88.
- 권귀숙,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45호, 2014, pp. 169-198.
- 박상란,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각시」,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5권, 2019, pp. 301-333.
- 손지연, 「오키나와 전투와 제주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41권, 2015, pp. 7-32.
- 양문규, 「현기영론-수난으로서의 4.3 형상화의 의미와 문제」,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연구』 제11권, 1998, pp. 201-224.
- 양정심, 「배제된 기억-제주4·3항쟁의 역사」,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6권, 2006, pp. 55-73.
- 양정심, 「1947년 제주3·1기념대회 주도세력에 대한 소고」,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7권, 2015, pp. 183-236.
- 염현주, 「제주4·3홀어머니 마을의 여성 생애사 연구-서방 이신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74호, 2023, pp. 519-547.
- 음영철,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료과정-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호, 2013, pp. 297-305.
- 이경민, 「법과 혁명: 1970~80년대 현기영 소설 연구」, 민족문학사연구회, 『민족문학사연구』 제75호, 2021, pp. 301-345.
- 이명원, 「4·3과 제주방언의 의미작용-현기영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9권, 2001, pp. 1-18.

- 이정석,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과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102권, 2008, pp. 529-555.
- 이정주,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7권, 2000, pp. 51-93.
- 이재승,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57호, 2015, pp. 235-268.
- 장숙원, 「제주4·3과 젠더기반폭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36-1호, 2024, pp. 63-93.
- 정문권·이희영, 「현기영 소설의 휴머니즘 연구」, 배제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제26권, 2009, pp. 1-13.
- 정선태, 「표준어의 점령, 지역어의 내부식민지화-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시점으로」,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제27권, 2008, pp. 113-128.
- 정원옥, 「끝나지 않은 애도: 4·3사건 피해 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제주4.3연구소, 『4·3과역사』 제16호, 2016, pp. 215-246.
- 정홍섭, 「학살의 기억과 진정한 평화의 염원 -제주4·3문학」, 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사연구』 제22권, 2023, pp. 328-348.
- 조명기·장세용, 「제주4·3사건과 국가의 로컬기억 포섭 과정」,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제43권, 2013, pp. 205-235.
- 하상복, 「문학의 정치성과 새로운 주체의 상상: 파리콤뮌과 빅토르 위고, 제주 4·3과 현기영의 경우」, 한국NGO학회 『NGO연구』 제15-2호, 2020, pp. 203-238.
- 한경희, 「제주 민중에게 제주 4.3은 무엇이었는가-민주화 이행기 제주 4.3이 민중항쟁으로 재현되는 과정과 방식」, 우리문학회, 『우리문화연구』 제79호, 2023, pp. 481-524.

#### 단행본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1부 텍스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근대를 다시 읽는다2』, 역사비평사, 2006.
- 양경인, 『선창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 은행나무, 2022.
-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 정희진, 「한국 남성의 식민성과 여성주의 이론」,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 정희진,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 조앤 스콧(John W. Scott), 「여성의 역사」, 『젠더와 역사의 정치』, 후마니타스, 2023.
- 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9쇄: 1993)
- 존맥클라우드,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엠플러스, 2003.

#### 기타 자료

- 국가정보법령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 2. 21.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투고일: 2024. 8. 19 심사완료일: 2024. 9. 10 게재확정일: 2024. 9. 13)

이태준  
소 속: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자우편: weonetruth@gmail.com

[Abstract]

## Female's Speech in Jeju 4·3 Novel and (Im)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Lee, Tae-Jun

This study analyses the portrayal of female characters in Hyun Ki-young's Jeju 4.3 novels from a postcolonial feminist perspectiv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imitations of their representation. The female characters in these works are depicted as victims of state violence and confined to patriarchal roles. This study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these constraints shap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Crows in the Doryung Ridge』, Gyurijip's suffering during the 4.3 incident is portrayed using Jeju dialect, subtly critiquing state violence. Similarly, 『The Holy Life』 explores the 4.3 through Gannan's life, set against the backdrop of colonialism and a divided historical period. However, female subjectivity remains limited to colonial resistance.

Hyun Ki-young's female characters are depicted as resilient, they are constrained by patriarchal norms and are unable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such as participating in or rejecting the uprising.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4.3 incident has largely fixed women as victims, suppressing alternative narratives.

This study argues that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4.3 incident requires acknowledgement of not only state violence but also the agency of the women involved in resistance.

Key words: Jeju 4·3, Postcolonial Feminism, Subaltern, Representation, Sacrifice Discourse, Hyun Ki-young, State violence, Patriarchy, Memory Struggle